

빅 뉴스

고조선 히브리어 와당 11점 더 찾았다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 (The roof-end tile with the ancient Hebrew)



• 시대 : 고조선
 • 출토 지역 : 평양 대동강 유역 (Daedong river valley, Pyongyang)
 • 전시실 : 국립 중앙박물관 아우치 이시오 기증 유물전시실
 Exhibit Hall : Iuchi Isao Collection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1987년, 아우치 이시오 선생님이 유물 1,082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평생동안 직접 모신 고대 한국의 벽돌이나 기와 중에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이 있다. In 1987, Iuchi Isao(1911-1992), a Japanese collector, generously presente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ith a total of 1,082 items of bricks and roof tiles to promote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Some roof-end tiles carved with ancient Hebrew.

히브리어 해석(decipher the writing on the roof-end tile)

וַיָּבֹאוּ הָעַם לְיִשְׂרָאֵל
 וַיָּבֹאוּ הָעַם לְיִשְׂרָאֵל
 - 고대 히브리어 (ancient Hebrew)
 וַיָּבֹאוּ הָעַם לְיִשְׂרָאֵל
 וַיָּבֹאוּ הָעַם לְיִשְׂרָאֵל
 - 현대 히브리어 (present-day Hebrew)

• 뜻 : '도착했다' (This means 'arrived')

• 해석자 : 고 신사훈 박사 (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히브리어 전문가)
 Translator : Dr. ShinSahoon (Hebrew expert, the former Professor of Religious Study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 >



• 시대 : 고조선
 • 출토 지역 : 평양 대동강 유역
 • 전시실 : 국립 광주박물관
 • 유물번호 : 본 864 (구 215번)

히브리어 해석 풀이

- (1) 다섯 잎이 달린 꽃(오엽화)
- (2) 단결, 협력하다
- (3) 신의 나라(왕국)
- (4) 들어가다, 한가운데 안으로 가다

• 뜻 : '오엽화와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라'
 • 해석자 : 고 신사훈 박사 (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히브리어 전문가)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



• 시대 : 고조선
 • 출토 지역 : 평양 대동강 유역
 • 전시실 : 국립 중앙박물관 아우치 이시오 기증 유물전시실

• 고대 히브리어 문양의 뜻 : 장면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 해석자 : 고 신사훈 박사 (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히브리어 전문가)

히브리어 해석

<left side of the tile>
 וַיָּבֹאוּ הָעַם לְיִשְׂרָאֵל
 וַיָּבֹאוּ הָעַם לְיִשְׂרָאֵל
 <right side of the tile>
 וַיָּבֹאוּ הָעַם לְיִשְׂרָאֵל
 וַיָּבֹאוּ הָעַם לְיִשְׂרָאֵל

장면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① 일본 사이타마 대학 소장 ② 경희대 중앙박물관 소장 ③ 경희대 중앙박물관 소장



④ 일본 테츠카야마 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⑤ 경희대 중앙박물관 소장 ⑥ 조선왕전도보 2권, 도194



⑦,⑧ 일본 테츠카야마 대학 소장 ⑨ 경희대 중앙박물관 소장 ⑩,⑪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1면에서

이러한 전통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대 통령의 좌석이나 군경(軍警)의 계급장 에도 무궁화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오엽화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승리제단에서는 고조선 시대 사용된 와당(사진 상단중앙) 문양에 나오는 '오엽화'는 무궁화라고 밝힌 바 있다. 위 문양을 해석하면 오엽화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는 뜻이다. 그럼 왜 하필 '오엽화'가 무궁화인가. 무궁화는 꽃잎과 꽃술, 그리고 씨방에 이르기까지 5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무궁화는 영생을 상징하는 꽃이요 무궁화 노래가 풍요를 비롯하여 가요에도 있다. 무궁화는 글자 그대로 영원히 피는 꽃이므로 '영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영생의 세계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무궁화를 어떻게 가져왔나

그럼 고조선 건국 초기의 사람들은 그 당시 무궁화를 볼 수 없는 대동강 유역에 언제 어디서 무궁화 꽃씨를 가져와서 심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한민족의 이동과정에서 찾아보자. 무궁화는 학명이 Hibiscus syriacus이다.

이는 무궁화가 시리아 지방에서 자생한 꽃이라는 근거가 된다. 학명에 시리아를 적은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중 동쪽으로 사라진 단지파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구세주 조희성 선생의 말씀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단지파는 블레셋 민족과 싸우던 중 기원전 1216년경에 장수 삼손을 잃고, 지금의 레바논 남쪽 소라 성읍을 떠나 동북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시리아, 이라크, 이란의 북서쪽을 경유하여 카스피 해(海) 서안의 바쿠(Baku: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에 도달하였고, 바다를 만난 우리 민족은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갈 때, 바쿠에서 무궁화(Hibiscus syriacus) 씨를 채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쿠는 북위 40도 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한겨울 평균 기온이 영상 4도로 온화하여 무궁화가 꽃 필 수 있는 자연환경이 된다. 무궁화의 재배조건은 최소한 영상 몇 도가 되어야 한다.



[그림 11] 무궁화 꽃씨를 심는 고조선 사람물. 사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온대지방에서 여름에 피는 꽃나무는 거의 없는데, 무궁화는 7~10월에 약 100일 동안 계속하여 화려한 꽃을 피운다.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에서 평안남도까지 자랄 수 있지만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그리고 만주에서는 자라지 못한다. 이러한 무궁화의 한반도 분포도를 염두에 두면, 고조선의 수도로 알려진 아사달(阿斯達)은 대동강 유역의 토성리(土城里)로 비정(比定)할 수 있다.

[그림2] 근화문 수막새 (고조선 시대)



5개의 암술 머리를 새긴 무궁화 수막새 출토지역: 토성리 (대동강 유역) 사진출처: 조선왕전도보(朝鮮及海國圖誌) 2권

이유인즉 토성리에는 고조선 시대의 수막새가 다수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그 수막새에 무궁화와 관련된 문양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스피 바다를 건너 한민족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중국 북부 알타이 산맥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시 우거(寓居)한다는 것이 2백여 년 동안 살게 되었고, 이후 알타이 산맥을 넘어 몽골을 거쳐 만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도착한 후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세웠던 것이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이다.

고조선 건국 초기에 신전(神殿)을 지을 때, 지붕을 기와로 장식하였다. 당시 일반적인 주거형태는 나무나 풀로 제작한 집이었으나 신전과 관공서 등은 기와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지붕의 기와 끝 끝에 사용되었던 기와, 즉 수막새는 인류 최초의 와당 건축물 양식으로 창작되어, 고조선의 수도로 비정되는 토성리에서 사용된 것이다. 기원전 1000년경 고조선의 원시 수막새에는 고조선의 나라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무궁화를 최대한 실제 모습과 관련하여 새겨놓았다. 그런데 기원전 사오백년경의 고조선 시대의 중엽에 이르자 근화문 수막새에 새기던 무궁화 문양은 실제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던 초기 문양과 다르게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암술 머리가 다섯 개로 갈라짐 (무궁화)

근화문 수막새 [그림1]의 근화문 수막새에는 고조선 초기 와당으로 무궁화 씨앗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새겨져 있다. [그림2]의 근화문 수막새 역시 고조선 초기 와당으로 무궁화의 암술머리 5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궁화는 꽃잎과 꽃술, 씨방 등 모두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3]의 근화문 수막새에는 다섯 갈



[그림 3] 근화문 수막새 무궁화의 다섯 잎사귀와 다섯 꽃잎을 복원한 모양과 꽃씨

래로 갈라진 잎사귀와 다섯 장인 꽃잎을 복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무궁화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조선의 근화문 수막새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막새 중심에 일원상(一圓相)의 동심원 문양을 한결같이 고

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조선 백성들의 선조들이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막새 중앙에 일원상의 동심원 문양을 둔 것은 태양을 상징하였다기보다 유일신 하나님과 신(神)의 나라를 표상

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천체를 지내는 제사터를 둥글게 쌓은 환구단 또는 원구단(圓丘壇)도 고조선 수막새의 동심원 기원(起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박태선 / 고조선역사 연구가

영생의 꿈 이루어질까? 30년 냉동보관 된 곰벌레 부활...인체 냉동보존술 현실로?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국립극지 연구소가 남극에서 채집한 뒤 30년 간 냉동 보관해오던 '곰벌레(물곰·waterbear·사진)'를 최근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몸길이가 최대 1.5mm에 불과한 곰벌레는 초온·초저온·건조·진공상태에서도 잘 죽지 않는다. 이번에 냉동상태에서 부활한 곰벌레는 1983년 남극에 있는 소와 가지에서 채취된 뒤 영하 20도에서 저장된 이끼에 포함돼 있었다. 연구진은 2014년 5월 냉동상태에서 꺼내 물을 주자 몸길이 0.3mm인 벌레 두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한 마리는 20일 뒤 죽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23일 뒤부터 모두 알 19개를 낳았고 이 중 15마리가 살아남았다.



곰벌레의 염기서열을 분석해 17.5%(약 6000개)에 달하는 유전자를 박테리아와 식물, 곰팡이 등 다른 생명체로부터 가르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통은 1% 미만의 유전자가 다른 생물로부터 유래했다. 이는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고 주변 생물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16-1-17)

인체냉동보존술은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미래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자신을 부활시켜 영생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냉동되어 죽은 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술은 발달하지 못했다. 이번 곰벌레 부활은 냉동보존술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가능성에 엄청난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곰벌레가 견뎌낸 실온상태에서 9년 만에 소생한 예가 있지만, 이번 실험 결과는 이를 크게 웃돈다. 연구진은 곰벌레의 장기 생존 및 번식 능력이 유지되고 있던 것은 동결로 세포나 유전자 손상이 최소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연구진은 냉동상태에서 깨어난 곰벌레의 상태를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해 DNA를 분석하고 생존 메커니즘을 규명할 계획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